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상지부	한국적은도서관	김정진	픽션들	민음사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경계가 무너지는 혼돈의 세계, 세계관의 분열과 확장을 느꼈습니다.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서부지부	꿈을 이루는 작은 도서관	박성희	시선으로부터	문학동네	정세랑	나와 함께 헤쳐서 고마워요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서부지부	대조점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삶의 모든 색	길벗어린이	리사 아사토 글, 그림	어름날 빙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놀았는지 기억하나요? 책장의 짧은 질문으로 어린시절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아이의 삶, 소년의 삶, 자기의 삶, 부모의 삶, 어른의 삶, 가난한 삶. 많은 삶을 살아온 우리를 책을 통해 추억해보세요.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서부지부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정성경	달과6번스	민음사	서머시롬	현실과 이상의 거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심도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앞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모한, 현실과는 먼 선택일지라도 그 길이 가치있고 나에게 소중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각도 해보며 또한 현실을 거부하지 못하고 선택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 시간들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참된 길임을 생각해봤습니다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서부지부	솔속SH작은도서관	조영주	모순	쓰다	양귀자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 . .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서부지부	천연동하늘샘작은도서관	유영선	엄마의 품, 품만 나면	<엄마의 품, 바우솔, 박철	박철, 김재홍, 이순옥	<엄마의 품>: 전진한 초등학교 4학년의 시선에서 피사자 나간 엄마를 향해 물주전자 들고 눈으로 향했다가 먹구름을 만나 순간 겁을 먹고 고민합니다. 왔던 참반 길을 돌아 집으로 갈지, 엄마에게로 달려 갈지요!! 이내 컴컴해진 세상에서 엄마에게로 뛰어가는 그 길만 황금으로 빛났지만, 극적으로 조우한 엄마에게 등락을 맞습니다! 정들때마다 생각나는 엄마의 품, 위험한 눈길을 달려온 철이의 마음이 어른이 마음을 늘 풍물하게 위로합니다> <품만 나면>: 어리지만 살아 있는 생명의 이야기로, 작지만 힘이 있는 나와 어리지만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참된 응원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자기답게, 나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양정적은도서관 달팽이	어선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한강	역사속에서 살아간다는 단어 하나로 표현된 그날의 사건과 그 후에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이고 서정적인 묘사로 빠져들게한다.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양정적은도서관달팽이	최영주	긴긴밤	문학동네	루리	1.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태어나던 날 처음 보았던 그 반짝이는 눈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비는 그제 있었고 하늘은 연꽃이 노고와 보았던 땅과 열매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2. 너는 이미 훌륭한 코발트야. 그러나 이제 훌륭한 행군이 되는 일만 남았네.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안은도서관협의회 책마루	박현정	대운실 수리 보고서	창비	김금희	과장되지 않는 언어의 표현 너무 좋아요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책마루 작은 도서관	박현정	위대한 캐츠비	민음사	스콧 피츠제럴드	시대가 만들어낸 소설가의 화려한 필체를 경험했어요.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박소희	세월	1984BOOKS	아니에르노	우리는 다만 우리들의 역사를 가졌을 뿐이고, 그 역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인천지부	공세알도서관	노윤주	너무 시끄러운 고독	문학동네	보후일 흐리발	문장은 전전히 스며들어 나의 뇌와 심장을 적실 뿐 아니라 혈관 깊숙이 모세혈관까지 비집고 들어왔다.' 이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충청지부	바재마을10단지작은도서관	민주현	순례주택	비룡소	유은실	발라주인 75세 순례지는 임대료를 시세대로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잠 잊지 않거나 노 순례처처럼 유쾌하고 담백하고 독립적이고 배품 좋은 멋진 할머니로 늙고 싶다. 수렁이 같은 나의 좌측근을 옆에두고 ... 책들 읽으며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이 책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된다면 어수선한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남부지부	산들마을푸른숲	하연서	AI 전환 시대엔 혼자보다	프리렉	최홍식	프롬프트 디자인, 기술이사 등 저자의 이력이 생소하지만 아이들 글쓰기 관심있는 남독동아리 몇분과 함께 책을 읽어 보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요즘엔 이런 글쓰기가 있구나. 전문가들이 이런 방법을 독려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글쓰기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책을 읽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느낌을 적어보렴" 방식의 글쓰기 수업을 경험 할줄 알았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나 방송에서 AI글쓰기를 독려하고 본인 글쓰기, 속재를 시플렛폼에서 해결하는 현재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알려줘야 할지 많은 고민을 나누는 책이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슈빌라움작은도서관	신정숙	현대 철학의 흐름	동녘	박정호 이봉재 조광재 양재현	현대 철학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서부지부	홍부네그림책도서관	이복임	진실과회복	북하우스	주디스 루이만 허먼	피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대변인을 통해서 사회해방자 의미가 없다.연론을 통해 사회해방자 의미가 없다. 본인이 직접사회해야 의미가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문수산단상작은도서관	문선임	연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해결책	차인표	엄마병에서 기다릴께...!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인간본성의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아름드리작은도서관	김경민	년 누구니	비룡소	노혜진	시대적 아픔과 침든 역경속에서 곳곳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몽글한 내용이였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양정적은도서관 달팽이	하현숙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정지아	구수한 사투리가 담긴 정!! 그 속에 담긴 따스한 마음들.. 달친 마음이 열리는 모습들이 아름답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은도서관협의회(아름드리)	김경민	년 누구니	비룡소	노혜진	침든 역경속에서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준 책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책읽는풍경 작은도서관	엄혜은	모순	쓰다	양귀자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말이 너무나무너무 많은	책과콩나무	트루디 루드윅	말이 너무 많은 아이 오펜 백피가 감기에 걸리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하는 이야기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이동북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안미자	오늘의 할 일	창비	김동수	물속 세계에서의 특별한 모험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오며 미소짓게 했습니다. 그림책을 보며 함께 이야기하기 좋았습니다.			